



www.at.or.kr

대만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7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7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대만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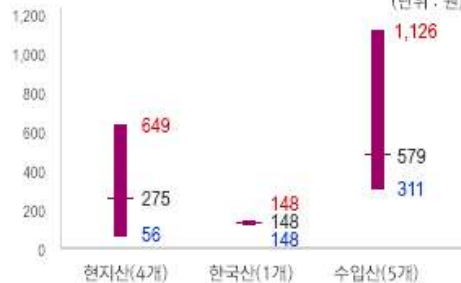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05원

1~7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1. 김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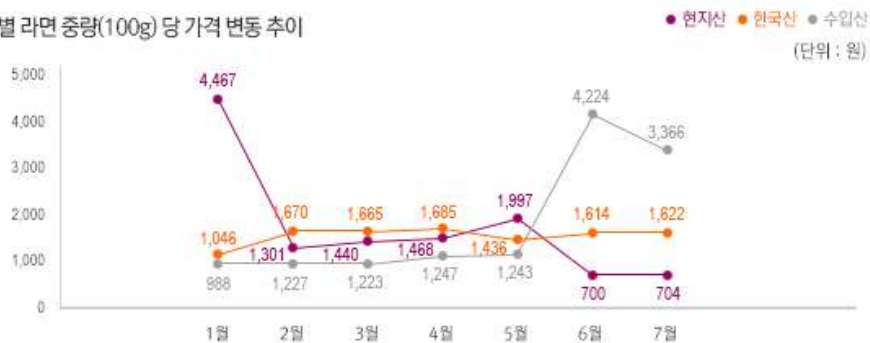
2. 음료류 (과채 주스)

2)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3. 면류 (라면)

2)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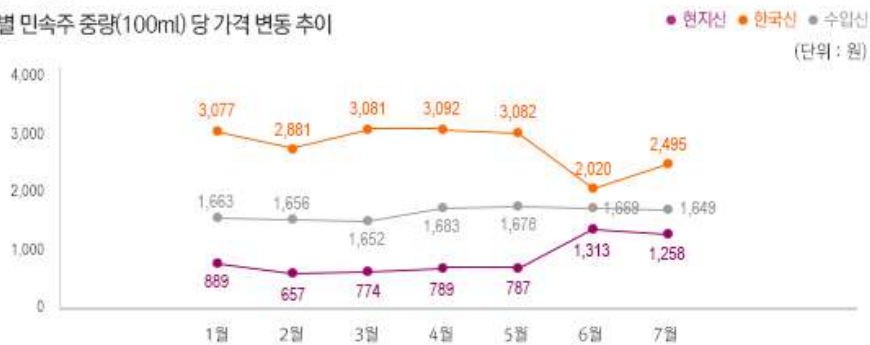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05원

1~7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4. 주류 (민속주)

2) 원산지 별 민속주 종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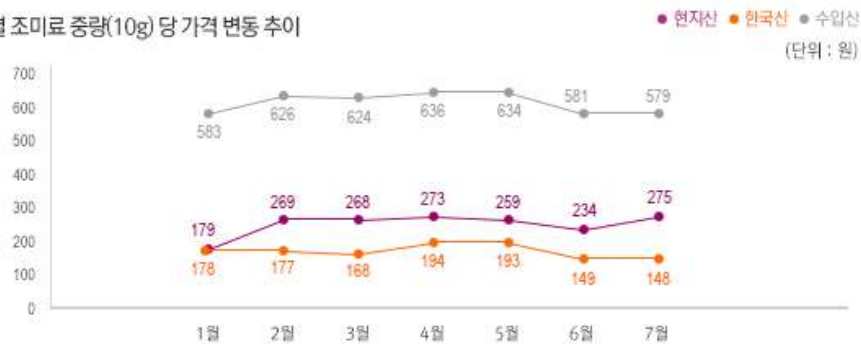
5. 제과류 (비스킷류)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종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6. 소스류 (조미료)

2) 원산지 별 조미료 종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05원

소스류

수요 감소 ▼ “ 더운 날씨에 기피되는 한국 고추장 ”

대만에서 한국산 스낵, 음료, 가공식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KOREA SHOP의 대표 Ms. Wei는 최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순창社の 고추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최근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더워 열을 돋우는 매운 음식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Ms. Wei는 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10월 ~ 11월쯤부터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판촉행사 진행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고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순창社 고추장]

스낵류

가격 상승 ▲ 수요 감소 ▼ “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든 한국 초콜릿바 ”

1974년 대만에서 설립된 이후 1000가지 이상의 수입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Kolsun International Ltd.의 담당자 Ms. Chen은 인터뷰에서 한국 초콜릿바 제품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난 6월 공급업체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가격조정을 시행했고, 이에 고객들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토로했다. Ms. Chen은 오는 9월, 대만의 국가적 명절인 중원절(中元節)이 다가오면서 한국 라면 등 여타 제품들은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콜릿바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초콜릿바]

* 중원절(中元節) : 중화권의 전통 명절로 한국에서는 백중(百中)이라고 하며 매년 음력 7월 15일로 지정되어 있다. 중화권에서의 음력 7월은 귀신의 달로, 보름에 가장 귀기가 심하며 이 달에는 귀신들이 산 자의 집을 방문한다고 여긴다. 대만에서는 귀신들을 달래고자 강물에 등불을 띄워 보내는 등의 행사를 거행하며, 혼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향과 음식을 공양하는 관습이 있다.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 “ 명절맞이 가격조절에 들어간 유럽·미국 스낵 제품 ”

유럽과 미국의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IUT International Trade Co., Ltd의 구매부 담당자 Ms. Liu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된 과자들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판매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한 달 뒤 찾아올 중원절(中元節)에 대비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며, 과자의 경우 가장 대중적인 식품이기에 가격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라 답했다. 그녀는 대만에서 중원절은 규모가 큰 명절 중 하나로 보통 한 달 전부터 제사용으로 다양한 물건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산 과자]

● 면류

수요 증가 ▲ 가격 하락 ▼ “ 협찬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킨 오뚜기 라면 ”

1991년 설립되어 3000가지 이상의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식품을 수입·유통 중인 봉국 식품(逢國食品)의 대표는 오뚜기 라면의 판매량이 눈에 띄 정도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원절(中元節)이 되면 제사에 쓸 공양물로 과자, 라면, 빵 등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며, 제사가 끝난 후 종종 이웃들과 공물을 나눠먹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오뚜기 라면의 경우 오뚜기사에서 중원절 프로모션을 협찬하여 다른 제품보다 가격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었고, 이에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에서 한국 라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 원래부터 판매에 어려움이 적었지만 이번 프로모션은 오뚜기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으로 판단했다.



[오뚜기사 라면]

● 음료류

수요 증가 ▲ “ 건강을 위해 마시는 유기농 주스 ”

대만에서 일본산 유기농 오렌지, 석류, 블루베리 등 과일 주스를 취급하고 있는 천주국제고배유한공사(天廚國際股份有限公司)의 담당자 Mr. Liu는 유기농 주스의 인기가 상승세라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도 일부 유기농 주스가 생산되나 수입산이 많으며, 대부분 제품을 채우는 족족 다 팔리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기농 제품은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년층 이상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중저가 제품의 경우 청년층을 타겟으로 삼는다고 답변했다. Mr. Liu는 유기농 주스의 경우 반드시 대만에서 통용되는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원료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농 블루베리 주스]